

창조 이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를 성실한 전쟁과 싸움의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위대함으로 찬양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허울스레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8월 30일 (토) 제 149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중동의 집시 쿠르드족

이라크전 해결대안으로 급부상!

워싱턴포스트, 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한 5가지 사실 보도

쿠르드족은 3천만-3천8백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라가 없어서 '지구의 미아'나 '중동의 집시'로 불리는 세계 최대 유랑민족이다. 성경에 메데족으로 기록돼 있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쿠르드족은 수니파 무슬림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살며 나라 없는 수난의 세월을 견뎌왔다. 그런 쿠르드족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바로 이라크사태가 끝없는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쿠르드족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상군 투입 없이 공중 폭습만'이라는 제한된 미국의 전략에는 쿠르드족이 바로 미군을 대신해 이슬람국가(IS)와 전면적인 지상전을 펼칠 수 있는 최대의 대안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쿠르드군은 최근 반군이 장악하던 모술을 탈환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이라크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를 끝내고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누구일까? 미국과 유럽은 왜 쿠르드군을 지원하는 걸까? 쿠르드족은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걸까?

따라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라크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 쿠르드족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정리한다(The long, winding history of American dealings with Iraq's Kurds).

쿠르드민주당(KDP)과 쿠르드애국동맹(PUK)의 갈등도 역사가 깊다. 때에 따라 손을 잡고 힘을 모으기도 했지만, 1994년과 1997년 등 여러 차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KDP는 이라크를, PUK는 이란을 끌어들이었다.

문제는 두 파가 그동안 서로 대립해 죽고 죽이면서 물리도록 싸웠다는 점이다. 지금이야 겉으로는 연합하는 척해도 물밑에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각 나라의 쿠르드족끼리 서로를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국 '적유는 피보다 진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시리아에서 쿠르드 자치정부가 생기고 이로 인해 터키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시리아 쿠르드족이 이라크 쿠르드족의 석유 수출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의 이라크 쿠르드족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미국이 개입한 이라크전쟁으로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미국은 자신들을 도왔던 쿠르드족에게 자치권을 약속했다. 2003년, 이라크 북부에는 '쿠르드자치정부(KRG)가 세워졌다.

인구 5백만여 명의 쿠르드자치정부는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패배한 이후 미국 지원으로 자치정부와 의회, 헌법, 군 구성을 보장받고 있다. 특히 관할 유전지대에서 하루 22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이라크 중앙정부와는 독립된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이라크사태에서 쿠르드군(페쉬메르가)은 수니파 반군 IS를 몰아내는데 있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최대 유랑민족인 쿠르드족은 IS와의 지상전을 펼치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 그러나 탄압과 학살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쿠르드족의 역사는 곧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다. 각지에 흩어진 쿠르드인들은

터키계, 이란계, 이라크계 등으로 나뉘어 대립했고, 강대국과 주변국들은 쿠르드족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이용했다.

이라크 쿠르드족의 양대 세력인

쿠르드족 앞에는 늘 '역사상 단 한 번도 국가를 가져보지 못한 세계 최대의 민족'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가졌지만 자신들의 나라를 갖지 못한 쿠르드족은 주로 중동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그 결과 쿠르드족은 현재 이라크 북부와 이란, 시리아, 터키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이들이 모여 사는 영토를 일컬어 '쿠르디스탄'으로 칭하기도 한다.

쿠르드족 인구는 3천만-3천5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절반가량이 1천460만명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5백만-6백50만명, 이란에는 8백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쿠르드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꾸준히 독립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돌아온 건 끊임없는 탄압과 박해, 그리고 대규모 학살이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80년대 후반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종청소'에 가까운 학살을 자행했고,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을 도왔다'는 구실로 18만명 이상의 쿠르드인을 학살했



2면 베이비부머 세대 자살 점점 더 늘어난다!



3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아름답다" 알려줘라!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Jesus Te Ama" 예수님 사랑하고 선교지로..

(9면으로 계속)

Since 1999 HYM www.hym.cc



제 31 회 H Y M 청년연합회

일시 2014. 9. 20-21 (토, 주일)
Conference 9/20 9:30AM
Open Worship 9/20 5:30PM
9/21 7:00PM

장소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강사 김승욱 목사 (분당 할렐루야교회 담임)

후원 OC교회 협의회 / Open Bank

conference registration \$15 / \$10-prior to 9/10
refer to www.hym.cc for more info

2 Timothy 2:1-4

Man of Integrity



시론

사슴나무골 텃밭이야기(8):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크고 작은 많은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들을 맞았을 때 마다 대처하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차이가 났던 것을 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인 편법을 다 동원해서 그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때로는 거짓말로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알게 된 후에는, 잔꾀를 부리느니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도움을 청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만흔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힘들고 모든 환경과 여건은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의 삶은 고달픈 싸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기별 가족이나 친지도 없이 자녀들을 키우며 모든 난관을 홀로 헤쳐 나가야 하니 고국에서의 삶보다 몇 배나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힘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나 주일예배를 드리며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세탁소와 샌드위치숍의 구석방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며 고단한 하루의 삶을 이겨나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기에, 내 안에서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탄식하며 간구해주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통의 강을 건너고 환난의 산을 넘어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헛바퀴와 같은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병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독거노인 분들이나 영어 통역이 필요한 교민들을 위해 병원에서 의료 통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틈틈이 봉사를 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지친 나머지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도 문제이지만 마음의 병이 더 문제였습니다. 간간히 뉴스를 통해 끝내 삶을 포기한 이민가정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분들이 주님의 손을 잡았다면,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한번 간절히 간구했다면, 그 분들의 남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때문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 분들을 위해 주님이 대신 자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것을 권면해주는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죄란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변명이나 항변도 하지 않으시며 나의 죄,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를 짊어지신 채 고난 받으신 동일한 십자가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구원과 죄사함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기적과 같은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베이비부머 세대 자살 점점 더 늘어난다!

WSJ, 로빈 윌리엄스 충격... 자살 이유와 대책 소개

영화배우이자 코미디언, 로빈 윌리엄스의 자살은 수많은 팬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윌리엄스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우울증과 투쟁하느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우울증과 동시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킨슨 재단(NPF)은 윌리엄스의 죽음에 대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으로 이미 슬픈데, 그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슬프다. 파킨슨병과 우울증은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NPF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기에,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의료 관계자들에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로빈 윌리엄스와 같은 연령대의 자살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교회공동체에 마련돼야만 한다고 보도한다 (Robin Williams's Age Group at Heightened Suicide Risk: Researchers Say Baby Boomers Face Financial, Other Challenges).

아들이기 힘들어 하며 ‘요즘 60세는 예전으로 치면 40세’라는 개념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 많은 직원이 정리되고 되는 분위기에 뿐더러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자살 방지 노력도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CDC에서 역학자로 일하는 알렉스 크로스비는 “자살 예방을 위한 자원을 어느 연령대에 집중할까 고민할 때 중장년층은 소외되는 것 같다”며, “지금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청년층에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06년 TV 인터뷰에서 윌리엄스는 자신의 약물중독을 이렇게 설명했다. “벼랑 끝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뛰어하는 작은 목소리’예요.” 그는 또 말했다. “그 목소리는 ‘딱 하나만 더 먹으라고 유혹하는 목소리’랑 같은 목소리인데, 딱 하나만 더 먹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중독자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죠.” 로빈 윌리엄스는 최근의 인터뷰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불안이 떨어보고자 알코올로 안식처를 대신했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

결론으로, 로빈 윌리엄스와 같은 세대들은 늘어난 평균 수명과 역할감당의 엇박자로 인해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이를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으로 중독된 상태로 현실을 마주한다. 이런 또는 독신으로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마주한다.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전해줘야 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전도 대상들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1999년에서 2011년 사이에 45세에서 64세 성인의 자살률이 40%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자살 방지 재단(AFSP)은 중장년층이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비해 자살률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AFSP에서 연구 부책임자를 맡고 있는 질 하커비-프리드먼은 “로빈 윌리엄스와 같은 스타가 아니고서야 중년층이나



평균수명 증가와 역할감당의 엇박자로 소외점증
일시적 진정책으로 알코올, 약물남용 중독 상태
종교귀의 비율 적은 세대... 예수께 짐 내려놔야

노년층의 자살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편”이라며, “그러나 젊은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입소문이 나고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 세대만의 독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럿거스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인 줄리 필립스는 청소년기에 자살률이 높았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중년에 접어들어서도 자살률이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리 필립스 교수는 해당 주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필립스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압박, 악화되는 건강상태, 약물 오남용 증가 등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살률을 높이는 요인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사회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필립스 교수는 이렇

게 설명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다. 또한 평생 독신으로 살거나 이혼하고 싱글로 지내는 이들도 많다.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가 없는 비율이 높다.”

지금까지는 노년층이 자살 위험이 가장 높은 연령대라고 알려졌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45세에서 64세 연령대가 노년층보다 자살 위험이 더 높은 집단으로 떠올랐다. 이런 추세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1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3만2,367명인 반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3만9,518명이었다고 집계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살예방센터 책임자인 패트릭 아보레 박사는 로빈 윌리엄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아보레 박사는 로빈 윌리엄스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아보레 박사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받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Doctor of Ministry. 본교소개 1.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아름답다” 알려줘라!

허핑턴포스트, 미국인들 좌절/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증가에 따른 진단과 대책 제시

해마다 미국에서 34,000명이 자살을 한다. 살인으로 죽는 숫자의 두배다. 15분마다 한 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보면 된다. 2030년 즈음에는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이 암, 중풍, 전쟁, 사고를 제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예상하고 있다.

노인인구 자살률이 가장 높지만 누구도 그 위험에서 예외는 아니다. 또 남자 자살률이 더 높지만, 자살 시도율은 여자가 더 높다고 한다. 총 자살자 가운데 25세에서 65세의 남자 인구가 약 50%를 차지한다. 미국국립보건원은 자살을 유발하는 이유로 노화, 약물중독, 정신적 트라우마, 실직, 또는 제정문제를

들 수 있다고 한다. 총인구의 약 13%가 생애 적어도 한 번은 우울증을 앓을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또 임상 우울증 환자 중 약 15%가 자살로 죽을 것으로 예측된다.

허핑턴포스트는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이 바로 좌절과 우울증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하여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지를 그리고 이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보도한다(Robin Williams' Death Reveals How Hard It Can Be To Climb Out Of Depression).

자살에 방대한 'Suicide Awareness Voices of America' 가능한 '토론 지역'에 우선 놓아두 술이 깰 때까지는 말이다. 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적어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나 친

세상을 좁은 관으로 보는 우울증...희망의 메시지 전해야 사회부적응, 약점, 성격결함이 원인이라는 느낌주지 말 것

Education(SAVE)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기존의 심리적 문제와 결합되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와 생긴다고 말한다. 심리적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알콜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그릇된 판단과 충동적 행동이다.

로빈 윌리엄스는 2010년 WTF 팟캐스트(영상 52분 즈음) 인터뷰에서 음주와 자살 충동의 연결성을 설명했다. 홀로 호텔 방에 앉아 독주를 마시며 자살을 생각하던 2년 전의 자신의 모습을 설명했는데, 자신의 여성이 술에 취한 뇌에게 "자살에 대한 안전은 '토론이



지에게 정말로 자살 증세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SAVE 네트워크는 비판단적이며 비대립적인 자세로 아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질 것을 권장한다:

1. 자살을 고려할 만큼 괴로울 때가 있었나?
 2. 자살로 목숨을 끊을 계획이 있나?
 3. 그렇다면 자살을 언제 할지 고려해 보았나(오늘, 내일, 다음 주)?
 4. 자살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 할지 생각해 보았나?
-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로 절망감과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자신의 소지품을 처분하거나 가족의 미래를 챙기는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의도를 열게 보인다고 미국국립보건원은 말한다.
-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성향을 보이는 지인이 있다면 곧장 도움을 청해야 한다. 우울증에 빠진 가족을 돕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물론 우울증의 원인이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존스홉킨스대학 심리/신경학과 부교수인 아담 카플린 박사는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그의 사회부적응, 개인적 약점 또는 성격결함에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고 썼다.

"우울증의 가장 나쁜 점은 환자의 시야를 좁게 한다. 즉 세상을 작은 관을 통해서만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못 본다.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다."

(1면에서 계속)

쿠르드군이 관리하는 지역의 치안이 제일 안전하다는 소문에 난민들이 밀려들 정도다.

이유는 하나다. 반군에 맞서 그나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쿠르드군 뿐이기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꺾이기만 남은 이라크 정부군은 IS를 피해 도망가거나 투항하기에 바빴다.

두 번째로 미군이 2011년 말 급하게 철수하면서 이라크군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점도 정부군의 무능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합지졸인 이라크 상아파 보안군의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IS의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여전히 페쉬메르가 뿐이다. 강대국과 이라크 정부의 박해 속에서 단련돼온 페쉬메르가 이제는 이라크의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쿠르드군이 강하기만 한 건 아니다. 쿠르드군은 IS에게

속절없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8월 초,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모술담과 인근 유전지대를 IS에게 내준 것. 그러자 미국이 쿠르드군을 돕고 나섰다. 미군은 무인기와 전폭기 등을 동원해 이 지역의 IS를 상대로 공습을 단행했고, 미군의 지원을 등에 업은 쿠르드군은 17일 모술담을 다시 손에 넣었다.

결국 이라크 공습을 결정할 이래, 미국은 쿠르드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애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습을 발표하면서 미군과 미국 시설이 있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을 IS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지역은 쿠르드자치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미국의 쿠르드족 지원에 또 다른 민족이 탄지를 걸고 있다. 즉 IS가 진격하면서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이라크 투르크멘족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이 이라크를 '3등분'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혼란에 빠진 이라크 중앙정부의 권력투쟁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정부를 지원해선 사태가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 쿠르드족을 활용해 IS와의 전쟁 및 이라크 내 권력투쟁을 동시에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외신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라크의 혼란 속에서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독립의 꿈에 부풀어 있다. 우선 그동안 중앙정부와 영토분쟁을 벌이던 키르쿠크 지역을 확보했다. 이 지역은 450억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세계 9위의 산유국인 리비아와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독립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이라크에 쿠르드 독립국가가가 생기면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국가로 여파가 번질 수 있다. 주변국들이 이를 수수방관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도 알말리키 퇴진 이후 이라크 중앙정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자치정부의 독립 움직임이 주변국의 쿠르드족 독립 운동으로 확대되거나 쿠르드족 대량 이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동 분쟁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물론이고 터키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수천년간 나라 없이 살아온 '중동의 집사' 쿠르드족이 이라크 전쟁 여파로 이제 중동 정치무대의 신주류로 떠오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통해 역사하실지 지켜보면서, 쿠르드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다.

소망 칼럼

근심 걱정 버리고 기도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방교회)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마귀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에도 그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 속에 몰아넣는다"고 하였다. 근심 걱정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바란다. 근심 마귀는 기도해야 도망간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한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지고 산다. 성경을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욘14:1)라고 하였고, 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왔나니 불타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욘5:7)고 하였다. 현대인들에게는 날마다 걱정 근심 염려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많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의 염려는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눅12:12)고 하였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하는 근심과 걱정 염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하나는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생겨날 일에 대한 걱정이다. 오늘을 사는 자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놓고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또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일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다. "다리에 이르기 전에 다리 건널 걱정을 마십시오"라는 격언이 있다. 세상 일이 걱정하는 대로 될지 안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일에 대해서 모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영국 속담에 "근심은 인생에 있어서 큰 적이다"라고 하였다. 성도들은 기도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의 적을 물리치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야 한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을 놓고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대개가 우리가 근심했던 것보다 모든 것이 좀 낫게 되는 것이 상례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상했던 걱정거리가 대개는 안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어 격언에 "염려는 빚지기 전에 이자부터 낼 걱정이다"(Worry is interest paid on trouble before it comes due)는 말이 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눅12:25)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며 기도해야 한다. 근심 걱정은 건강에도 해롭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걱정이 몸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17:22, 15:1)고 했다. 신앙 면에서 생각하면 걱정은 불신앙의 표현이다. 걱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증상이다(요14:1). 그래서 Bishop Sheen은 걱정을 무신론(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상)이라고 했다. 근심은 순환기관을 해롭게 하고 심장의 활동을 마비시켜 신경조직을 약화시킨다. 세상에는 일을 해서 병나는 사람보다 걱정 근심해서 병나는 사람이 더 많다. 근심은 누구에게나 해롭다.

그러면 걱정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걱정을 이기는 길은 성경이 가르치는 꼭 한 길이 있다. 성경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시37:5, 55:2, 잠16:3, 벰전5:7)고 하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고 하였다.

2014년 미주총신대학교 가을학기 개강세미나 안내

가을학기 개강예배 일정

일시: 2014년 9월 2일 (화)
저녁 7시
강사: 고귀남 목사 (LA 언약교회)

개강특강 1

일시: 2014년 9월 4일(목)
저녁 7시 ~ 10시
강사: 전철영 박사
제목: 성경과 선교

개강집회

일시: 2014년 9월 8일(월), 9일(화)
저녁 7시 ~ 8시
강사: 탁영철 목사 (산호세 제자들교회)

개강특강 2

일시: 2014년 9월 8일(월), 9일(화), 11일(목)
저녁 8시~10시
강사: 김근수 박사
제목: 신약의 종말론

개강특강 3

일시: 2014년 9월 15일(월), 16일(화), 18일(목)
저녁 7시~10시
강사: 이광복 박사
제목: 구원의 서정

가을학기 입학/편입생 모집 (9월 3째주 까지 가능)

■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 전문학사 과정: 여교역학과
- 학사과정: 신학 전공, 선교학 전공, 교회음악, 실용음악 전공, 기독교 교육 전공

■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학과 및 학위과정

- 신학대학원: M.Div(목회신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로 세례교인
- 일반대학원: Th.M. - 신학 전공, 선교학 전공; M.Div. 학위 소지자; M.A. - 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전공 - 학사 학위 소지자; M.C.M - 교회 음악, 실용음악 전공 - 학사 학위 소지자
- 박사과정 : D. Min. - 목회 경력 3년 이상의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1. 학교입학에 필요한 원서와 서류를 학교 홈페이지(www.chongshinusa.ed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2. 유학생을 위한 I-20 Form을 발행합니다.
3. 각종장학혜택이 있습니다.
4.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On line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교는 현재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으로 연방정부기관인 TRACS에 가입신청 중에 있습니다.

SEVIS I-20
본교발행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성경구절을 암송하는 즐거움

지루함과 유혹이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시나요? ...

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와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

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쁨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

더욱이 암송된 말씀은 언제나 내 속에 있어서 수시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

게 됩니다. 말씀의 내용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암송은 즐거워집니다. ...

푸/른/초/장

김재연 목사 (칼빈대학교 총장)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요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

뿐만 아니라 모세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니다. 뒤에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

믿음의 사람들로 칭송받습니다. 먼저 모세의 40세 이전의 삶을 살펴봅시다. 첫째,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

셋째,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좌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진 재물로 여겼습니다. ...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에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

음만 있으면 그 두렵고 무서운 감정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니다. ...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는 모세

(히브리서 11:23-26)

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생사 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바로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

화려한 왕권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이것을 거절하고 영원한 주님의 기업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

가 한 일이라고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고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

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며 신약에서 베드로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

이런 모세의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Table with columns: 학부, 학과, 학년, 졸업 및 동등학력자

Table with columns: 대학원, 학과, 학년, 졸업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 6시
3 입학 시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 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장 영춘 박사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유럽 최고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결정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 운동가들이 미국전역에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고자 오바마 정부와 함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모든 resources를 동원하여 공략을 하고 있지만, 미국보다 "동성결혼"과 "동성결혼"에 앞서있던 유럽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바로 2주전에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미국의 연방정부 Supreme Court) 법원에서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미국의 연방헌법 Constitution과 같은 것)로 더 이상은 모든 유럽나라들이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정투표에서 14-3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놀랍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법원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동성결혼을 더 이상 모든 유럽나라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높은 법정에서 내려진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UN의 유럽 멤버들 가운데, 47개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겨우 10개국(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포함)만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UN의 CIA World Fact Book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 중에서는 겨우 18개 나라들만 동성결혼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수많은 유럽의 작고 큰 나라들은 지금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법정에 올라갔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더 이상 "one size fits all"식으로 무조건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 합법화 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유럽 나라들마다,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인권문제, 자녀문제, 재정문제, 가정

로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자신의 남성 신분을 여성 신분으로 바꾼 후 여성 ID를 받으려고 법정에 요청했다가 핀란드 법정에서 거절당하는데, 이유는 핀란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않고, 결혼의 신분이 바뀔 때는 꼭 아내의 동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찬성을 하여 남편이 여성이 되어도 자신은 함께 부부로 살겠다고 하였지만 문제는, 핀란드 법정에서는 남편이 여성으

부부로서 받던 모든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핀란드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이 생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유럽의 최고 법정에 핀란드법정에서 있던 일을 소송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의 최고 법정과 핀란드 법정의 많은 논란 끝에 유럽의 최고 법정은 오히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도의 기적!

이런 뜻밖의 일이 유럽의 가장 높은 법정에서 일어난 것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아직도 남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과 온 세계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미국의 연방고등법원에서도 미국에 아직 남아있는 33개의 주들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고, 미국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페이스북(Facebook)에 들어가서 tvnext.org를 찾으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긴급 기도 제목, 꼭 아셔야 하는 뉴스들(자녀교육을 포함)을 거의 매일 포스트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셔서 Like도 눌러주시고 업데이트와 기도제목도 가지고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럽 UN 멤버 47개국 중 10개국만 동성결혼 인정 동성결혼 합법국마다 정상부부보다 더 많은 문제 야기

폭력, 성폭력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그냥 정상부부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생겨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매우 큰 역할을 한 흥미로운 법정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를 통해 동성애가 얼마나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럽 핀란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부부가 결혼을 하여 아이들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갑자기 여성으

로 바뀔 경우 두 사람을 더 이상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성의 신분으로 바뀌면, 정상적 부부신분에서 레즈비언 부부로 바뀌고, 따라서 엄마도 여성에서 레즈비언 여성이라고 신분을 바꿔야 하며, 아이들도 정상적 부모 하의 자녀가 아니라, 아빠 없이 태어난 고아 같은 wedlock 신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성을 여성으로 바꾸면, 가정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동성애 파트너 신분으로 바뀌고, 그동안 결혼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이번에 로마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여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톨릭교에서는 이 세상에 로마카톨릭교만이 참 교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교황의 무오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답변과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나성에서 권 집사

A: 한국에서는 얼마전 로마 교황이 방문함으로써 '신성한 충격'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도 고급차가 아닌 소울을 타고 겸손하게 처신하며 고통과 소외당한 자를 돌아보며 겸손과 사랑과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깊이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과 그들이 말하는 교황권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준웅목사님이 쓰신 "교회와 이단"이란 책을 보면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비판하고 있습니다(p.191-195).

로마카톨릭교회는 유일한 하나의 보편적 교회가 있으며 그 교회 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1302년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교서로 재확인되었습니다. 1854년 교황 피우스(Pius) 9세는 "아무도 사도적 로마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카톨릭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방주이며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홍수에 침몰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 로마카톨릭교회 뿐이라고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07년에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교황, 마리아 승천교리도 만들어

로마카톨릭교회의 정치는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 제도인 로마카톨릭교회 자체이며 둘째는 정치적 권력으로서 바티칸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실제로는 둘이 하나입니다. 두 제도의 머리는 교황이며 교황은 순전히 영적인 권세로 로마카톨릭교회의 최고의 종교지도자이며 전 세계 외교상 정치적 중심의 특성으로 바티칸의 최고수장이기도 합니다. 바티칸은 대사들과 장관들을 다른 나라에 파송하며 다른 나라로부터 대사들과 장관들을 받아들입니다.

로마카톨릭교회에서 교황은 로마의 감독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교회의 머리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합니다. 교황의 대관식을 주관하면서 대주교는 선언합니다. "세 왕관으로 꾸며진 삼중관을 받으소서. 그리고 당신은 황제와 왕들의 아버지시오 세상의 지배자시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임을 아소서."

1299년 교황 보니 페이스 8세는 구원의 필수적 요소로 모든 사람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이 결론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파문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로마카톨릭교회에서 인간 교황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적 존재입니다. 그의 지상권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세계의 모든 국가를 망라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 등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짐승을 바로 로마카톨릭교회의 교황권으로 보았습니다.

교황의 무오는 제1차 바티칸 회의(1869-1870)에서 제정된 교리입니다. 여기서 로마카톨릭교회가 말하는 무오란 교황이 죄 없는 존재라거나 그의 모든 말이 영감됐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가 우주적 목자로서 법적으로 정의한 도덕이나 교리적 가르침은 예외적으로 무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안에 두 실례로는 교황 피우스 9세가 1854년 성모의 원죄없는 잉태교리를 규정했을 때와 피우스 12세가 마리아의 승천교리를 규정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교리를 교황의 가르침이기에 무오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주장은 어느 성경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교황 자신이 만든 교리요 전통일 뿐입니다. 교황이 규정한 교리도 성경의 지원이 없다면 인간이 만든 유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담임목사청빙

루이지아나주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1.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M Div).
- 2. 목사 안수후 2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 3. 목회 계획서
- 4. 최근 시무한 교회 3개월내 주보 1매와 설교 CD 2 회분, 온라인(동영상)

제출처

- 1.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80 Dudley Ln Bossier City, LA 71112 혹은
- 2 sbpc990@gmail.com

연락처

유호석장로 (318-349-2347)

제출기한: 2014년 10월 11일

슈리포트보조 한인장로교회

SHREVEPORT-BOSSIER KOREAN PREBYTERIAN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특별 배달됩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도그리(DOGRI)



인도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사회적, 여러 집단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하나의 모자이크와 같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어떤 하나의 민족집단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인도는 약 762만명이다. 2백10만명의 도그리족은 잠무주와 카쉬미르 주 등 북부지역에 주로 살며, 편잡의 평야와 카쉬미르 계곡 인접의 설산 사이에서 살고 있다. "도그리"라는 이름은 종족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름이다.

도-아리안 어계에 속한다.

삶의 모습

인도 인구의 73%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가카스로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수확하는 농부들이다. 농지는 극히 작으며 대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힌두교 중심적이다. 많은 힌두교 조직들은, 엄격한 카스트(caste)제도를 포함해 세속적인 인도 사회에도 폭넓은 영향력을 지닌다.

적인 카스트들로 나뉘어져 있다. 카스트는 직업이나 친족관계와 혈통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나 약간의 예외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는 사회조직에서 가장 본보기 때문에 일부 부족사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정무주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유머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의모가 출중하며, 똑똑하고, 키가 크며, 근육질이며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

도그리인들의 65%는 힌두교도이며 33%는 무슬림이다. "힌두교"라는 용어는 서기 1200년경에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힌두교에서 믿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힌두교도를 대다수는 최상의 존재인 신을 믿는다. 어떤 힌두교도들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아채만을 먹는다. 반면 다른 힌두교도들은 신전에 제사 드려진 고기를 아무 구애 없이 먹는다.

에게는 그들의 종교가 매우 개인적인 것이지만 다른 힌두교도들에게는 비개인적이다. 대부분의 힌두교도들이 "브라만"(창조자), "시바"(파괴자), "비슈누"(보존자), 여신 "샤크트리"를 숭배하는 반면, 그들은 또 다른 작은 신들의 신전과 그들의 화신이 된 물체, 배우자나 자손도 숭배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도그리인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의 일부와 기독교 라디오방송이 사용 가능하다. 또한, 2개의 선교단체가 현재 이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선교사들 '에볼라 완쾌'

서아프리카에서 의료선교하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미국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던 미국의 선교사 2명이 완쾌한 것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의사 켄트 브랜틀리(33)는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모리대학병원에서 퇴원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기적 같은 날"이라며 "건강을 되찾고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브랜틀리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 기자회견에 응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료 선교사 낸시 라이트볼(60·여)은 지난 19일 비공개로 퇴원했다.

라이베리아에서 두 선교사와 함께 사역한 기독교자선단체 '사마리아인의 지팡이'는 성명을 통해 "세계 전역의 사역자들과 함께 에볼라 완쾌를 축하하며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국 호텔 객실내 성경 없애...미 해군은 재배치

영국과 미국의 숙박업체가 객실 내 성경 비치해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최대 호텔 체인 중 하나인 트래블로지가 수년에 걸쳐 호텔 500여곳의 모든 객실에서 성경을 없앤 반면 미 해군이 운영하는 호텔 등 숙박시설 40여곳은 치유했던 성경을 2개월 만에 다시 가져다 놓기로 했다.



트래블로지는 지난 16일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종교가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고객 불만이 제기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미 해군은 지난 14일 숙박시설과 호텔의 객실에 성경을 다시 비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군 대변인은 군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경을 방에서 치운 방침을 종교수용정책에 따라 재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성경을 객실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침례교회 당분간 예배 중단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침례교회(사진)가 이스라엘 군 공습 때문에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선교단체 미국오픈도어선교회(오픈도어)가 최근 밝혔다.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침례교회 한 마하 담임목사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 지난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며 "임시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인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다. 마하 목사도 가족과 뿔뿔이 흩어졌으며 교인들과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모임이 가능한 교인들끼리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한 오픈도어 사역자는 "침례교회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지만 그곳마저도 여러 차례 공습 피해를 입었다"며 "이곳은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당국은 도서관을 당분간 폐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기독교인들은 신앙뿐 아니라 일상조차 불안한 상황이다. 오픈도어는 "몇몇 기독교인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며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최근 한 가정에 '집 근처를 대상으로 공습을 준비하고 있으니 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YMCA에 따르면 올해 현재 가자지구 기독교인은 1312명이다. 이슬람교인은 팔레스타인 인구 대다수인 170만여 명이다.

미, 자국민 침수한 IS에 강경 대응

미군은 제임스 폴리 기자 참수 동영상 공개된 다음날인 20일 IS에 대규 모 공습을 강행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존 케리 국무장관을 각각 성명을 내고, '이슬람국가(IS)'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방부는 이날 이라크 북부 모술lem 부근 이라크 반군 IS 측을 향해 14차례나 공습, IS 혐의차량 6대와 장갑차, 이외 다른 목표물들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으로 자국민과 자국 시설이 있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과 모술lem 부근을 중심으로 IS에 대한 공습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 휴가지만 미 동부의 매사추

세츠에 위치한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며, 다른 국가들과 함께 IS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장관은 "미국은 이라크 반군 IS와 같은 악마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IS와 그 사악함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다만 '제한적 공습' 기조는 일단 유지했다. 공습과 치안요원 증파 이외에 별다른 카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유럽, 이슬람 반군 가담자 증가로 골머리

이라크에서 취재 도중 실종됐던 미국 기자가 IS에 의해 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영국 BBC 등 유럽 언론들은 최근 들어 서방국가 청년들이 이슬람 반군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은 IS 대원 가운데 500-1000명 정도가 유럽 등 서방국가 출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S의 비공식 병력 규모는 11,000명 수준으로, 이들 가운데 최대 10%가 서방국가 출신인 셈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튜브·트위터 등을 통한 반군과의 접촉을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반군에 가담하는 청년들은 정치적인 동기보다 '성전에서 죽으면 천국이 보장된다'는 교리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기간 2014년 8월 21일(목, 저녁) ~ 9월 4일(목, 저녁)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일 ~ 15일	우리교회(강화·경문사)
1일 ~ 9일	갈멜산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중지역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평안교회 (지중근교사)
10일 ~ 12일	청백중앙교회(경문사)	26일	신학성 철야 기도회(GST)
13일	오산의 최자살기별 금식기도원		

2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17일 ~ 19일	웅인 신세계교회(영문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평안교회 (지중근교사)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14일	성일교회(영문구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사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운교회(이동훈목사)
30일	신학성 철야 기도회(GST)

4

3일	갈멜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교회(최희범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20일 ~ 23일	신명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사태 성회(최민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19일 ~ 22일	갈멜산 강회금식기도원(영연)
25일	신학성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버드대학교(영문구목사)

6

9일 ~ 11일	명수대학교(강화·경문사)
15일	주목교회(최성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교회(최희범목사)

7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평안교회(지중근교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18일 ~ 25일	드림교회(김영수목사)
27일	신학성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회금식기도원(영연)

8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5일	평화교회(최희범목사)
11일 ~ 14일	GST 32n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웅인교회(영문구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1일	남구주 목회(최희범목사)

9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연)
13일 ~ 16일	평화교회(최희범목사)
17일	영문교회(영문구목사)
21일 ~ 23일	오병교회(김영희목사)
28일	신학성 철야 기도회(GST)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6)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설교론-불꽃같은 설교자

카이퍼는 대설교자이다. 특히 그는 대중 설교자이다. 카이퍼는 대중을 사로잡는 강력한 메시지의 소유자다. 우선 카이퍼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며,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기어올라 관철 시키려는 활화산 같은 설교자이었다. 167cm의 작은 키에서 뿜어 나오는 그의 뜨거운 확신의 메시지는 가히 작은 거인의 모습이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운동 때문에 철저히 망가진 화란 교회와 사회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진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이며 사상적 혼란의 세상에서 카이퍼는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하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말과 글이다. 그래서 카이퍼는 50년 동안 일간지와 주간지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메시지를 썼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대중들을 사로잡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았다.

물론 우리는 카이퍼를 신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교회의 개혁가, 사회의 개혁가, 언론인 등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두

드러진 것은 그가 목회자요 설교자였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칼빈을 오직 조직신학자, 성경주석가, 종교개혁자로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설교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의 칼빈을 잘 모르듯이, 카이퍼의 경우도 아주 흡사하다. 카이퍼 연구자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다만 화란의 전 캠퍼 신학대학의 실천신학 교수였던 베인호프(C. Veenhof) 교수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설교개념과 사상’이란 책을 썼을 뿐이다. 필자도 베인호프 교수의 글을 많이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카이퍼는 평생 설교했지만 그의 설교집은 1867년에서 1873년까지 했던 여러 설교를 모은 ‘카이퍼의 설교들’(Predication)이 있다 그

중에 목회 설교가 12편이 있고, 베이스트교회, 우트레흐트교회, 암스테르담교회 등에서 취임설교, 고별설교 등 특별행사 설교가 10편이 있다. 그러나 차라리 카이퍼의 설교는 말씀을 통한 명상집 형태로 많이 출간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카이퍼는 강단에서 행했던 설교문을 거의 매일, 매주일, De Heraut지나 De Standaard지에 명상록 형식으로 연재하여 신자이던 불신자이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명상록 형태의 글과 책들이 그의 설교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명상록이라고는 했으나 언제나 성경분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구체적 삶에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카이퍼의 설

교관 또는 그의 사상은 일찍이 매일 수없이 쏟아낸 De Heraut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카이퍼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칼빈주의 신앙노선이 삶의 전 영역에 구체화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중화 했다고 할 수 있다.

카이퍼에 있어서 성경과 설교

카이퍼는 말하기를 설교란 말씀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설교와 관련하여 기술했다. 그래서 카이퍼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Gods Woord in de Schrift is een)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통일성(eenheid)을 가진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언어의 다양성(Veelheid)을 만나 설교화 된다고 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으며, 설교자 각자의 다양한 언어를 도구로 사용되어 전달되어지는 것인 만큼 설교자는 말씀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카이퍼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이면서 그것은 전부이다(God Woord alleen en geheel)라고 했다. 그러므로 설교 곧 말씀을 섬기는 것은

성경의 유일성과 전체 통일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성경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믿는다고 해도 그런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 성경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성경을 말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Levend Woord)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왕의 대사(Als ambassadeur Van Zijn Koning)로서 왕의 지혜와 왕의 권세로 증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는 설교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약계시의 역사(Geschiedenis der heilsopenbaring 救贖啓示史)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주장은 우리가 설교할 때 성

의 말씀을 섬기며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웅장한 구속사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다.

카이퍼가 성경과 설교와의 관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계시의 핵심이므로 항상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피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신을 계시했으므로 설교자는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약 전체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축이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계시의 중심(Het middelpunt der Schriptopenbaring)으로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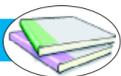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성경과 설교를 논하면서 성경은 곧 신앙의 책이므로 믿음이 없는 성경을 깨우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자만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도우심과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카이퍼와 칼빈은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며 말씀과 성경이 더불어 역사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카이퍼는 로마서 10:8의 말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 하는 믿음의 말씀이라”함을 인용하면서 설교자도 청중도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말씀을 섬기는 것(설교)은 성경의 유일성과 통일성으로 접근 성경계시의 핵심 예수그리스도 초점 맞춰 구속사 흐름 관찰

책 소개



저자 임지석 목사

“한 길을 가려무나”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길이 주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반면에 가서는 안 되는 길도 많이 있습니다. 또 길인 줄 알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두고 두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평소 ‘한 걸음’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지며 살아왔다



또한 그는 “성경은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교훈을 던져준다. 세상에는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며 그 길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기에 그 분을 따르는 사람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갈 길을 인도 한다”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강권하고 있다.

본서는 제 1부 ‘내가 부르는 행복의 노래’, 제 2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제 3부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 제 4부 ‘우리는 무엇을 믿는 나라 사랑’, 제 8부 ‘삶에서 배운 지혜’로 나뉘어져 총 100여 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저자 임지석 목사는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도미 UC리버사이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사업을 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후 풀린신학대학 목회학석사 과정과 그레이스신학대학에서 선교학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임지석 목사는 현재 나성세계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율인의 사랑’, ‘십자가의 비밀’, ‘하늘에 쓰는 편지’의 다수를 출판했다.

책 구입 및 저자 문의는 (213)219-9229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인생이 가야하는 한 길은 오직 예수 안에... 됩니다...(중략) 임지석 목사가 ‘한 길을 가려무나’(쿰란출판사) 머리말에 기록한

는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가치관을 나누고 싶다고 책 줄간의 목적을 말한다.

가?, 제 5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제 6부 ‘날마다 빛어가는 신앙의 자화상’, 제 7부 ‘디아스포라의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마가 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막힌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맺어지는 해피 스토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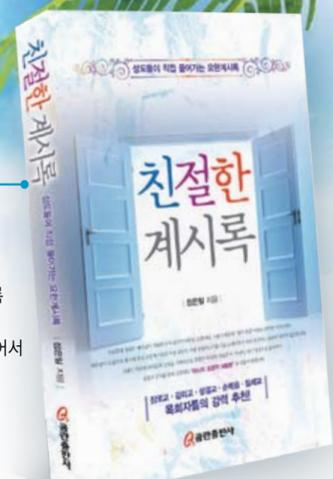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하늘 나그네 야곱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몇말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친절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품어봤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쿰란출판사

창조 주간의 제 4일째가 지났을 때 지구는 물과 바다와 대기가 있고 해와 별들이 지구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이제 지구는 드디어 생명체들을 보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5일째 처음으로 생명이 있는 동물(moving creature that has life)들을 창조하셨다. 큰 바다 짐승들(great sea monsters)과 물에 사는 동물(living creature that moves)들, 그리고 날개를 가진 새(winged bird)들을 각각 종류대로(after their kind) 창조하셨다(창1:20-21).

성경에서 '생명체'라 함은 피를 가진 동물만을 의미한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레 17:11, 14). 그래서 범죄한 사람의 생명 대신 인시로 동물들의 피를 사용하여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물의 생명은 진짜 사람의 피가 아니므로 완전한 값이 될 수 없어 결국에는 진짜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유일한 예수님의 피 즉 생

창조과학 칼럼 (202)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1) 큰 바다 짐승과 타조

지어 식물까지도 서로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고 결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수많은 동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종류대로'를 통해 하

거북, 최고의 밀물일 때 바닷가 모래밭에 기어나와 알을 낳는 그로니온(grunion)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물속 생물들은 전기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창조물들이다. 그러나 어디 이 뿐일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사소한 것이 없다. 그 다양한 무늬와 모양과 색깔,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영하는 물고기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완벽한 기능들을 생각해 볼 때 모두 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며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다.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은 또 어떤가? 땅 위에서는 다소 뒤뚱거리기도 하지만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완벽함이란 과학자들의 경이 그 자체다. 날아갈 때 체온을 보호하는 깃털은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더 질기다. 몸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속이 빈 뼈,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피의 흐름

기 교 문



김재영 교수
(ITS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

아이스버킷 챌린지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페이스북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끌며 도전을 주고 있다. 이 챌린지를 통해서 ALS 재단에 대한 도네이션(헌금)이 50달러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현상에 대해서 주목해볼만 하다.

사실 몇몇 스포츠 선수들의 투병기를 통해서 루게릭병에 대해서 들 어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병에 대해서나 그 증세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그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알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얼음물을 가득 담은 버킷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백혈은 루게릭 재단에 희사하라는 아이디어는 이 특이한 매스미디어 시대를 활용하면서 관심 없던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성공을 거둔 것 같다.

여기에서 일단 루게릭 재단에 백혈을 희사하는 일을 일단 배제하고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이벤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벤트 자체가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도 재미를 선사한다. 상당히 유명한 유명인사이건, 그저 약간의 친구들만 있는 사람이건, 그런 사람이 얼음물을 한 버킷(바게스) 뒤집어쓰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약간의 가학적 성격에 그 얼음 물을 자신이 뒤집어 쓸 일을 상상하면서 느끼는 공감, 그런 정도라면 보통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안전성, 약간의 선의를 위해서 자기의 체면 정도는 구걸 수 있고, 그런 수모 정도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모습이 주는 약간의 감동과 뿌듯함 등등이 페이스북이나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전파된다. 이 시대에 딱 들어맞는 포스트모던적인 이벤트다. 이벤트 자체가 얼마나 순간적이며 재미있는가 말이다!

나는 루게릭 재단이 활용한 이런 식의 챌린지를 다른 운동에서도 기꺼이 활용할 것을 권한다. 기아대책이나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오병이어에서도, 말하자면 새물결플러스 출판사에서도 이 비슷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멈추어 서서 흥미를 갖고 지켜보고 그 도전에 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이벤트 자체보다는 이 이벤트의 인기가 보여주는 시대성의 문제다. 이 시대는 산업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혁명의 시대이자 대중의 시대가 되었다. 대중의 시대에서 대중은 산업자본주의사회가 요구하는 행동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구태여 도덕적이 되거나 윤리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의식이 지배한다. 그들은 사회의 부품일 뿐이다. 그런데 이 도전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천편일률화 된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의 작은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도전이 우리의 일상을 작은 한 순간이라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것은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나는 왜 이런 긍정적 효과와 도전이 발생하는가를 묻는다. 그 효과와 도전은 이 근대 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 사회의 전반적인 성격에 힘입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사실은 그 성격을 힘입어서 퍼져나간다. 얼마나 덧없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벤트는 이벤트로 끝나고 이벤트로서 활용될 뿐이다. 즉 그 도전은 그 도전이 담고 서 있는 도덕이나 양심이나 선행이나 윤리성을 끄집어내어 자극하기보다는 활용하고 소비할 뿐이다. 물론, 나는 그러한 이벤트에 동참해서 얼음물을 뒤집어쓰면서 그것을 어렵사리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올려주는 착하고 순간적으로 용감한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이벤트에 깔려 있는 바탕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그 재단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해보자면, 그렇게 모은 기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벤트에 참여하여 모금에 동참한 이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는가? 아니, 모금에 동참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기금들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고 경청해보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물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다 열려있다고 대답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런 대답이 온다 할지라도 모금행사와 일단 모인 기금들에 대한 운용은 확실히 다른 문제일 것이 뻔하다. 우리가 그 기금 활용에도 일일이 관여하자는 말이 아니다. 나의 지적은, 이 두 영역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10면으로 계속)

창1:20의 큰 바다짐승은 고래가 아닌 '탄닌' (tannin)으로 멸종된 수룡 타조는 환경에 의해 진화된 게 아닌 처음부터 날 수 없는 새로 창조

명이 필요했던 것이다(히9:12).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니므로 물에 사는 생명체든 날개를 가진 생명체든 각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된 상태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될 때 수영을 배워야 하는 물고기가 없었고 비행을 연습해야 하는 새들이 없었다. 또 하나님은 그 동물들이 물 속 가득하게 번성하도록,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다. 곧바로 알을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어미들로 창조하셨던 것이다.

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것처럼 수생 동물들이나 날개 가진 동물들도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동물들이 노아 방주에 탑승한 방식(창6:19-20)과 이유(창7:3b)를 보면 종류대로의 의미는 교배의 한계임을 알 수 있다. 온 지면에 생물의 씨를 보존하기 위한 방주에 코로 숨을 쉬며 피를 가진 동물들이 각 종류별로, 암수가 쌍으로 들어갔다. 다른 종류와는 서로 교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는 종류대로란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형상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간단한 아메바가 진화하여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사람까지 진화했다는 주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었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심



큰 바다짐승(탄닌)과 처음부터 달리도록 창조 된 타조는 창조 5일째 창조 된 지구 최초의 생명체들이다.

나님은 자기 형상인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다.

물에 사는 생물 중에 특별히 큰 바다 짐승들(great sea monsters)을 지목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 번역본들은 이 동물을 고래로 혹은 큰 물고기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된 큰 바다 짐승들은 고래가 아니다. 히브리어로 '탄닌'(tannin)이란 동물인데 지금은 멸종된 수룡으로 보인다.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는 뒤에 "마지막 공룡"에서 더 다루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금도 많은 생물들이 매일 멸종

이 있다. 현재 가장 큰 동물은 청고래로 알려져 있는데 길이가 30미터 무게가 170톤이나 되어 공룡들보다 더 크다. 입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이 90톤이지만 목구멍은 비치불이 들어갈 정도로 작다. 심장은 600kg이나 되는데 작은 자동차와 맞먹는 크기다. 새끼가 태어날 때 하마만 한데 처음 7개월 동안은 하루에 400리터의 우유를 마시며 몸무게가 매일 90kg씩 늘어난다.

물속에서 빛의 굴절율을 계산하여 물을 뿜어 벌레를 맞춰 잡아먹는 물총고기, 민물에서 태어나 바닷물에서 성장하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와 알을 낳고 죽는 연어, 알에서 깨어나 4500km나 떨어진 브라질 동해안으로 정확히 찾아오는 녹색

과 허파 등은 비행기를 디자인하는 공학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 깃털의 아름다운 배열과 무늬가 3차원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정보는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유일한 분, 성경의 하나님의 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 창조자 하나님은 음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는 날개짓을 아무리 신나게 해도 날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창조 당시에 거기에 없었던 사람들은 타조가 원래는 날 수 있는 새였는데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없어지자 뚱뚱해지고 날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 지금은 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조의 화석은 예전에도 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날아다녔다는 타조의 조상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욥39:18). 처음부터 타조는 날지 못했다고 하신다. 증인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목회서신

사랑거리

요즘 제 주변에는 자식 자랑하는 친구들에서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할 때는 팔불출이라는 말을 의식해서인지 조금은 조심심을 하더니, 손주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카톡, 컴퓨터 스크린, 스마트폰 등에 손주 사진으로 도배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입에 침이 마

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제 세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들은 만나면 서로 얼마나 손자손녀 자랑을 하시는지, '자랑하려면 돈내고 자랑하라', 혹은 더 심한 경시우, '돈을 줄테니 그만하라'고 진심적인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손주자랑' 하나가 떠오르는 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 외동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사님에게는 타주에 사는 딸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통해 보내오는 손자의 사진과 동영상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손자 자랑을 너무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자제하시는 듯했습

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가정 이 교회 친구분들을 손자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에는 돌 선물을 사달라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주려고 모였고 집사님은 좋은 음식과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오신 하객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앞으로 나와 손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손자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 자랑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된다고 오늘은 부족하지만 식사 대접을 하며, 돌 선물을 받는 대신 맘껏 손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에게 손주들은 진정 자랑거리 중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저 출산시대에 태어나준 이 귀한 손자 손녀들은 단순히 자손일 뿐만 아니라 친구, 애인, 양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부터 여섯 개의 주머니(Six Pockets)를 찬다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모의 두둑한 돈을 사들인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주려고 모였고 집사님은 좋은 음식과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오신 하객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앞으로 나와 손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손자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 자랑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된다고 오늘은 부족하지만 식사 대접을 하며, 돌 선물을 받는 대신 맘껏 손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에게 손주들은 진정 자랑거리 중의 자랑거리입니다. 특히 저 출산시대에 태어나준 이 귀한 손자 손녀들은 단순히 자손일 뿐만 아니라 친구, 애인, 양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부터 여섯 개의 주머니(Six Pockets)를 찬다고 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외조부모의 두둑한 돈을 사들인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주려고 모였고 집사님은 좋은 음식과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오신 하객들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앞으로 나와 손님들에게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손자 돌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 자랑 하려면 돈을 내고 해야 된다고 오늘은 부족하지만 식사 대접을 하며, 돌 선물을 받는 대신 맘껏 손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자 손녀의 작은 몸짓이나 어설픈 언어에도 열광하듯이 우리에게 열광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조금만 멀리 있어도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시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자람에 걸맞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 제자의 삶이 되도록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SF 새누리교회 '교사 감사의 밤' 개최

"영적 딸 교육에 감사" ...홈리스텔터 봉사도 진행



새누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사은회에 참석한 교사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마운틴뷰에 위치한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가 지난 24일 저녁 '교사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사은회(Teachers Appreciation Banquet, 이하 TAB)를 갖고 교사에 대한 위로와 감사를 표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120여명의 교회학교 교사들은 부모님들이 교사들에게 전하는 감사메시지를 받고 깊은 감격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은혜를 나눠 부모들의 가슴을 축복이 적시기도 했다. 이날 한 교사는 "나는 딸이 없는

데 영적 딸들을 지도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본 교회 교육부에서는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다"며 헌신자를 찾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홈리스 텔터 봉사도 진행됐다. 새누리교회 홈리스 텔터 봉사자 들은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하우스(홈리스텔터)로 달려가 140명분의 불고기를 비롯한 한국음식을 준비해 섬기고 돌아왔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홈리스텔터에서 밥 한끼를 대접하는 것은 작은 사역 같이 보일수도 있지만, 참석자들은 그들에게 음식 뿐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담아 전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큰 사역이라고 입을 모으며 작은 자, 약한 자들을 돌아보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섬김의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예심전도대학 제8기 22명 졸업

제9기 모집 및 공개세미나 9월 8일 예정



미주 예심전도대학 제 8기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미주예심전도대학(학장 박용덕 목사) 제8기 졸업식이 25일 오전 9시30분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려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식은 졸업생들의 감격스러운 간증과 실제적 전도의 나눔이 세 시간동안 은혜 가운데 진행된 후 조은영 목사(남가주 크리스천교

회)의 사회, 박관 사모(가나안교회) 기도 이어 이종욱 권사와 정안나 집사의 크롬하프 축하 연주가 있던 후 '보아도사상의 하나님'(고후 9:16-24)이라는 제목으로 학장인 박용덕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쉬운 전도, 되는 전도, 불신자도 좋아하는 전도'를 지향하는 미주예심전도대학 전도법은 본질적 전도,

눈높이 전도, 맞춤형 전도, 매력적 전도, 전전후 전도, 매그넷 전도, 면류관 전도, 에스킹 전도법 등을 통해, 쉽지만 강력한 파워 전도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평평이 나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한 번만 들어보면 매력적인 예심전도법에 꼭 빠지게 하는 미주예심전도 강의는 주로 학장인 박용덕 목사가 가르치고 있으며, 동영상 훈련과 전도 간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전도자로 살게 한다"고 귀띔했다.

미주예심전도대학에 등록비는 50달러이며, 지원 자격은 목사, 사모, 전도사님들을 비롯해 전도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제9기는 9월 8일 오전 9시 30분 남가주빛내리교회 내에 있는 미주예심전도대학에서 시작된다. 자세한 것은 (714)401-9874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법을 배우자!

(1면에서 계속)

여인은 크게 놀랐다. 그리고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으려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에게 아픈 과거가 있음을 알아냈다. 그 뒤 이어진 대화, 즉 예수님이 그녀의 영적 공허함과 사회적 소외를 돕는데 기여한 대화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볼 한 잔 주겠소?"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지막으 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예리하고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그분은 빌립 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모아놓고 물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차례로 훑어져라 응시했다. 그리고 그가 던진 질문 중에 가장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셨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일어섰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

며 말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불참해 가 재판관을 받은 후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을 그의 제자들은 리더를 잃게 될 상황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의 혁명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상에 왜 왔는지를 제자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만일 예수님이 단지 여러 랍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들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면 된다. 고기잡이든 새금 징수든 환자 치료든 말이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을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가 구세주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 그분을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구축 등등의 가치를 확고하게 고수하며 거기에 헌신할 것이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열정과 마음속 감화를 토대로 예수님이 못다 한 사역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부활하고 나서 더욱 확고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갔다. 대부분 목숨을 잃어 가면서까지 말이다.

결국 이처럼 질문의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이번 주간, 말씀은 읽으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질문하는 법을 적용해보면 보도록 하자.

애나하임한인장로교회, KPCA 서남노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후원금 전달

미국장로교회(PCUSA) 소속 애나하임한인장로교회(담임 신윤석 목사)는 그동안 교회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과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모은 헌금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지난 25일 미주장로회 체펠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신학교를 지원한 애나하임교회는 본 신학교와 같은 교단이 아닌에도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더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서남노회 여성교회는 지난 22일 원교 산타페언어문화교육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교육원은 미주 장로회 운영하면서 전문 신학교



애나하임한인장로교회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육 외에 언어, 문화강좌들을 지역 사회에 공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로회신학대학)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동부교계 기사판



통일·북한선교 컨퍼런스

시카고주립리 통일구국기도회와 통일소망선교회가 주최하는 통일·북한선교 컨퍼런스가 9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시카고한인교회(담임 서장권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73)899-0188, chiminlove@gmail.com

제2회 조이플심포니밴드 콘서트

뉴욕늘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가 제2회 조이플심포니밴드 콘서트가 9월 28일(주) 오후 7시 퀸즈칼리지 레파라 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문의: (516)798-2000 마크킴 행사준비위원장

'로마카톨릭 알기' 세미나

'로마카톨릭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9월 1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세미나가 열린다.

▲문의: (718)281-3156

“행복한 회기를 만들자”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 제 6회기 첫 임실행위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제 6회기 첫 임실행위 가 지난 25일 에버그린장로교회(담임 김금옥 목사)에서 열려 6회기 동안의 행사들을 발표했다.

1부 예배는 김명숙 목사(코네티컷 협동총무) 사회로 기도 오명의 목사, 말씀 전희수 목사, 광고 권캐더린 목사, 축도 김금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행복한 회기를 위하여”(마5: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행복의 8가지 원리 발표에 대해 언급하면서, “8가지가 하모니를 이루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 의를 위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한 계단씩 올라갈 것”을 강조했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 6회기 첫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님의 말씀처럼 내 것이 없는 청지기님의 말씀처럼 내 것이 없는 청지기님의 계명을 기억할 것”을 역설하고, “기도와 말씀묵상으로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회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전희수 목사 사회로 권캐더린 서기의 회원점명에 이어 지난 7월 21일 있었던 회장 이취임식, 행복한 회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안건으로는 △성탄이웃사랑 찬

블랜톤필-한상연 MOU

우수 상담전문가 양성, 상담문화 발전노력

Blanton Peale Graduate Institute(이하 BPGI)가 지난 8월 7일 (사)한국상담전문가연합(이하 한상연)과 상호협력협정(MOU)을 맺었다.

BPGI(디렉터: 손안젤라)는 1937년 Dr. Norman Vincent Peale목사와 psychiatrist인 Smiley Blanton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상연(회장: 양총재)은 2011년 8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민간자격 관리 기관으로 승인된 비영리 봉사단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심리 상담이라는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 정신적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상담을 통해 밝은 사회, 행복한 세상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다.

미주지역의 확장을 위해 2011년 미동부지역에 지회를 설립하고, 지회장에 박호숙 박사(NYTS 목회상담학)을 임명한 바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상연 미동부지회(www.kacp.kr) (201)574-5730, BPGI(www.blantonpeale.org) (201)919-1809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8면에서 계속)

마지 동적적 투표행위와 권력을 잡은 자의 일탈적 권력행사가 분리되어있다는 말이다.

그 다음은 어느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지적했듯이, 이 재단에서 이 기금으로 연구한다는 줄기세포 연구의 문제다. 줄기세포연구문제에 기독교 윤리상으로 깊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것은 아무리 배아의 상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출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제스처들이 비록 우리 편에서는 엄청난 선의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맥락이 바뀌게 되면 다른 식으로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음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배양된 태아의 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떼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다. 그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대뉴욕다민족선교대회에서 예일찬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다.

뉴욕의 다민족들에게 복음전파

뉴욕장로연합회 주최 대뉴욕다민족선교대회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대뉴욕다민족선교대회가 지난 24일 후 리성제일교회에서 열렸다.

1부 예배에서 설교한 김승희 목사(뉴욕교회협회장, 뉴욕초대교회 담임)는 “교회와 선교”(행8:1)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뉴욕초대교회가 설립 초기 크게 부흥하다가 몇년 후 큰 어려움에 빠져 많은 교인들이 떠난 날이 있었다”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겪었던 이유와 같이 교회에 선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로 선교를 시작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지금도 선

교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회가 계속되길 바라며,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장로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봉사상을 받은 11명의 블런티어 캠프 참가자들.

“나눔과 봉사의 의미 체험했어요”

이노비, 블런티어 캠프 참여 11명에 봉사상

여름방학동안 이노비 주니어 블런티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노비 봉사상을 받았다.

지난 23일 맨해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이노비의 상징인 파란리본을 맨 11명의 아이들이 상장을 들고 “Let's Spread Happiness all together!”를 외쳤다.

이노비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11명의 중고등학생 이노비 주니어 블런티어들과 함께 평소 경험하지 못하던 이웃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전하는 봉사캠프를 열었다.

직접 도우며 짧지만 알찬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컬럼비아대학교 켈트 홀의 강의실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아이들이 겪은 봉사나 나눔 활동을 통해 얻은 생각과 경험을 발표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봉사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1명의 아이들은 5일 동안 컬럼비아대학교 Teacher's College 교육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세 명의 담당 선생님과 교실과 야외에서의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가까운 이웃에서 문화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체험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봉사가 시작되는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이노비)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for various denominations including NY, NJ, and Hawaii regions. Includes church names, pastors, and service times.

한인교계에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

한인목회자들 동참...단순 재미 취급 불만도

SNS(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타고 세계적인 화제로 부상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미주 한인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병 받은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동영상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루게릭병 환자가 겪는 근육 수축의 고통을 체험하자는 의미다.

이 퍼포먼스는 루게릭병 관련 ALS협회(alsa.org)에서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최근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참여해 얼음물을 스스로 뒤집어쓰는 장면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이스버킷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한 목회자들

LA다저스 류현진 선수는 팀 동료 유리배 선수에 의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을 코믹하게 그리며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아이스버킷챌린지는 한인사회에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LA 한인들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유명인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구경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아이스버킷'에 동참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장면에 대해 대화를 하기도 했으며, 사랑의빛선교회와 단 김목사를 비롯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인 피터박 목사, 베데스다대학교 교수이자 HYM 찬양팀을 담당하는 김섬리 목사, 선한정지교회 김도혁 목사 등이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이벤트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포퍼먼스가 너무 재미위주로 흘러 취지를 벗어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픔을 공유한다는 취지와는 무관하게 단순한 '블거'로 웃고 지나친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ALS 관련 단체는 일부 환자 가족의 항의 전화도 잇따르고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나 가족들의 시선에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챌린지 속에 담긴 환자나 가족의 아픔과 절실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ITS 교수는 "이 이벤트가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모든 기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이벤트에 참여하여 모금에 동참한 이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는지에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재단에서 이 기금으로 연구한다는 줄기세포 연구의 문제다. 줄기세포연구문제는 기독교 윤리상으로 깊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되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8면 기고문 참조].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가을말씀잔치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가을말씀잔치를 '성숙과 섬김'이란 주제로 9월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문의: (323)227-1400

이천 목사와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세미나

이천 목사와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세미나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미주복음방송에서 열린다.

▲문의: (213)271-6439

미주평안교회 세미나 청년 여름집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이승진 목사)는 2014 세미나 청년 여름집회를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29일(금)부터 31일(주)까지 갖는다. 시간은 저녁 7시이며 정중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 이지선 자매가 출연한다.

▲문의: (213)381-2202

새로운교회 설립예배

새로운교회(담임 이승필 목사, 2432 9th St. Garden Grove) 설립예배가 오는 9월 6일(주) 오후 4시 세인트올라프 루터교회에서 열린다. 남침례교단 소속으로 담임은 이승필 목사가 맡는다.

▲문의: (949)933-2794

브니엘성서연구 강습회

브니엘성서연구는 '성경 한 눈에 보기' 지역 강습회를 실시한다. 오렌지카운티(OC) 사이프레스 지역 강습회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주님의빛교회(5271 Lincoln Ave. Cypress)에서 열린다. OC사우나파크 지역 강습회는 같은 기간에 호산나평화교회(7342 Orangethorpe Ave. A103 Buena Park)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강습회 내용은 신약이며 강사는 남기락 박사(브니엘성서연구 대표).

▲문의: (714)351-4747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되심 인식"

제10기 LA목회자아버지학교, 강사 권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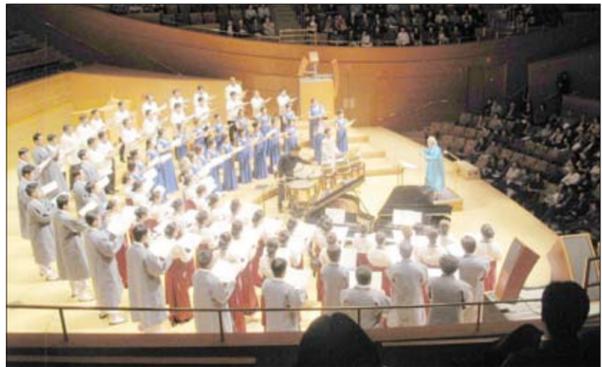
제10기 LA 목회자 아버지학교 네 번째 만남이 24일 오후 4시30분 소망장로교회(담임 송준기 목사)에서 열렸다.

이은수 목사의 찬양인사로 시작된 아버지학교는 4개조로 나누어 조별모임을 통해 나누어진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위해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족식을 실시할 때 아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는 "아버지의 사명은 첫째, 자녀의 원천이다. 자녀들은 언제든 돌아갈 품이 있고 기댈 등을 필요로 한다. 그 존재가 아버지다. 둘째, 자녀의 지표가 돼야 하며, 셋째 자녀들에게 자부심이 돼줘야 한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지 자녀들이 필요할 때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넷째는 미래의 보장이 돼주는 것이다. 아버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 파운데이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맞게 살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10기 LA 아버지학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제 5099차로 열렸으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열렸다.

(박준호 기자)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국의 얼' 공연에서 지휘자 윤학원 교수가 YHWC와 LAKMA 연합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하모니...

YHWC-LAKMA '한국의 얼' 주제 공연 대성황

LAKMA(LA Korean 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 이사장 최승호) 주최 '한국의 얼' 공연이 월드디즈니 콘서트홀에서 22일 오후 8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연은 한국합창계의 대부 윤학원 선생이 이끄는 윤학원 코랄(YHWC)과 윤임상 교수가 뮤직디렉터를 있는 LAKMA 챔버콤파이어가 함께 무대에 올라 감동과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했다.

LAKMA가 전통적 리듬을 담은 현대적 미사곡인 '반딧불 미사', '보리밭', '그리운 금강산' 등을 선보였으며, YHWC가 '주기도', '거기 너 있었는가' 등 성가곡과 '고향의 봄', '뜻있어' 등 가곡을 선보였다.

또한 두 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엮어나갔는데, 이날 공연주제인 '한국의 얼'에 부합하는 '아리랑 판타지'

를 세계최초로 공연했으며, '아! 대한민국'은 태극기의 4괘 건·곤·감·리를 4악장으로 해 민족의 무궁한 광명과 번영을 표현함으로써 큰 감동을 안겨줬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하모니' 성황

부부합창단, 여성중창단, 오위영, 김미경 출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마련한 한여름밤의 음악축제가 '하모니'라는 주제로 23일 오후 7시30분 콘서트 장소인 가주영아학교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대흥장로교회 합

시바여성중창단(지휘 신동희 전도사), LA사랑의부부합창단(지휘 김효인 교수), 소프라노 김미경,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출연해 한여름밤 한인타운 한복판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공연장을 찾은 관중들이 출연팀

들이 부르는 곡 한 소절 한 소절에 귀를 기울이며 감상하기도 했으며, 특별히 테너 오위영 목사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불렀던 '네손도르마'를 불렀을 때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한 더텐트에서 마련한 고기 바베큐와 핫도그, 그리고 커피를 즐기는 등 페스티벌이 연상되기에 충분했다.

한편 더텐트의 파킹랏 콘서트 9월 공연은 오는 13일(토)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박준호 기자)



제10기 목회자 아버지학교가 열렸다. 사진은 세족식모습



'하모니'라는 주제로 열린 더텐트의 파킹랏 콘서트에서 대흥장로교회 합시바 여성중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여름밤의 음악회: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영양)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lafgusa@yahoo.com / www.lalgo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수·금요일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t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Holyway 영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7:45 Tel: (323)483-6625, Fax: (32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중앙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있음),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8:00 주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www.mjpa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www.dhpc.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영양) 수요일예배: 오전 11:00 대영어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생명의 사랑: 오전 6:30(토) 생.고.대. 찬양: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다옥성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iao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버린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5:30 새벽기도회: 새벽 7: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채교회: 3659 242번지 안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주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949)370-5500 / Fax: 370-2009 16660 Mainway,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월간 현대종교, 주요교단 신대원생 이단인식 실태 조사

한국교회의 차세대 목회자인 신학대학원생 10명 중 3명은 주요 이단들의 핵심교리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사역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경험이 있었고, 36%는 한국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월간 현대종교(대표 탁지원)는 최근 주요 교단 소속 신대원생 467명을 대상으로 이단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가 핵심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이단 단계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신대원생이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백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8개이며 신외수준은 95%, 표준오차는 4.5%P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핵심교리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이단 단계

는 신천지였다. 40.7%가 신천지의 핵심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19.9%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로 지목된 기독교 화동일가정연합(통일교·12.6%), 핵심교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16.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12.6%),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11.3%), 기쁜소식선교회

입되기 전에 이단 대처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했던 교회에 이단이 침투한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는 46%가 '있다'고 답했다. 이단이 침투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담임목사와 상의했다'가 42%로 가장 많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가 25%, '교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18%였다. '이단상담소에 의뢰했다'는 답은 5%에 불과했다. 응답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회가 이단에 대처하는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32%가 '부족하다', 4%가 '매우 부족하다'가 밝혔다. '충분하다'거나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신대원생은 각각 19%, 6%에 불과해 교회의 이단대처 능력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현대종교는 이에 대해 "신대원생들은 이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이단 대처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단

'예비목회자' 신대원생 28% "이단 핵심교리 전혀 몰라"

(8.6%),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5.1%) 순이었다.

현대종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처럼 이단에 대한 예방과 대처의 기본은 이단 단체를 아는 것"이라며 "신대원생들이 목회현장에 본격적으로 두

자의 80%는 이단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데 비춰보면 이단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했던 교회가 이단에 관심이 있는지는 질문에 응답자의 81%(보통 41%, 높음 29%, 매우 높음 11%)가 "그

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원론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 '이단에 대한 총괄적인 책자를 배포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퇴 압박' 한영훈 한교연 회장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거취 묻겠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영훈 대표회장은 다음 달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거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한 대표회장은 "두 달 동안 지속하고 기도가면서 여러 교계 현실 가운데 9월에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임기동안 성실하게 한교연과 한국교회를 위해 대표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한영훈 신대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일교단인 예장 통합 등은 한 대표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규정 임기는 8개월로 줄어든다고 설

명했다. 그는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초 예정된 차기총회 날인 내년 1월 29일까지 대표회장으로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대표회장은 "두 달 동안 지속하고 기도가면서 여러 교계 현실 가운데 9월에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임기동안 성실하게 한교연과 한국교회를 위해 대표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한영훈 신대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회일교단인 예장 통합 등은 한 대표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규정 임기는 8개월로 줄어든다고 설

잇따르는 군 사고...복음으로 무장하라

감리교 군선교 66주년 기념 군선교대회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회(회장 이천식 목사)는 21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교단 소속 군종목사와 성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교 군선교 66주년 기념 군선교대회'를 열었다.

이날 군선교 담당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군대 사고는 한국교회가 군선교 활동을 소홀히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또 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60만 장병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길 한마음으로 간구했다.

전용재 감동회장은 설교에서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문상담사제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목과 군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감동회장은 "군선교 최일선에 있는 군목과 군종은 전문상담사가 다루기 힘든 장병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 성경말씀과 기도로 권면하면서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었고 유·초년층이나 청년들의 교회 이탈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군선교는 황금어장"이라

고 말로만 해선 안 된다.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선교에 집중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이우 목사는 인사말에서 "장병들에게 바른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면서 "군선교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군에서 세례를 받는 숫자가 매년 14만~15만명에 달한다"면서 "군선교가 한국교회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바로 알고 군선교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감리교 군선교회 이사 이정원 감독은 축사에서 "요즘 이순신 장군

의 올곧은 군인정신을 강조한 영화 '명량'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처럼 우리 군목과 군종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두려움을 용기로, 다름을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군선교 활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감리교 군선교회는 이날 고 손원일 해군제독의 부인 흥은혜(해군중앙교회 원로) 권사와 주일 한국사랑부 초대 군종감독을 지낸 박민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감리교는 목회자 107명을 군인교회에 파송했고, 올해 안에 '감리교회 군종 66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교회 바로 서는 일에 최선"

교개혁 수련회 마지막 날 성명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의 대표적 개혁그룹인 교회갱신협의회(교갱협)는 제19차 영성수련회 마지막 날인 20일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18일부터 3일간 경기도 안성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특강과 기도회를 가졌던 목회자와 사모 등 1000여명은 이날 오전 폐회예배를 드린 뒤 '우리 자신과 교단의 갱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개혁 이사장 김경원 목사, 대표회

장 이건영 목사 등 목회자들은 성명에서 "십자가의 길과 동떨어진 사역을 해 온 목회자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며 "다른 이가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와 교단의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 점을 통감한다"고 고백했다. 또 "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갱신해야 할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인식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애통고 상한 심령으로 부단히 자기 갱신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단 바로 세우기에 대한 다짐도 있었다. 교갱협은 "70세 정년"을 규정한 교단헌법을 위반한 총신대 총장 문제, 98회 총회결의를 위반해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단총무 문제,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심사 및 결정과정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거룩한 교단, 합법적 절차가 되는 교단, 상식과 균형을 갖춘 교단이 되도록 교단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공동체"라며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의 발호와 전락적인 공격, 사회로부터의 불신과 세상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망연자실해 있다"고 밝혔다. 교갱협은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단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우리는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더욱 긴밀히 연대해 본 교단과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단 해제' 비판 교수·목사 174명 승소

한기총에 10억 피소...이단 경계비판에 힘 실릴듯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황재철 목사)가 한기총의 이단 해제를 비판한 신학대 교수 170명과 목회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반 판결로 이단을 경계·비판하는 교계의 움직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단해제 비판했다 10억원 피소=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성)는 21일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 해제에 문제가 있다)며 피고들이 발표한 성명서는 이단 해제 결정을 둘러싼 신앙교리 논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피고들의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교

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용규 총신대 교수와 진용식 안산상목교회 목사 등이 지난해 6월부터 6차례 항의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한기총이 '다락방총회' 류광수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정하고 다락방총회와 합친 예정개회 교단에 회원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 등은 당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 사이버이비 집단에 회원권을 준 것은 정

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회원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총은 박 교수 등이 성명을 내면서 한국교회의 신학자들과 신학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표기된 것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8월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신학교수들의 손을 들어준 이유=서울중앙지법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2010년 9월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평강제일교회 박용식씨가 박용규 교수 등 총신대 교수 19명을 상대로 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로, 종교적 비판에 따른 명예훼손 행

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기념비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총신대 교수들이 (박씨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와 비판서를 작성·배포할 당시 이미 정통 기독교계의 여러 단체에서 박씨에 대해 이단성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었다"면서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종교 비판의 권리 최대한 보장받아야"=대법원은 특히 이 판결에서 언론·출판의 목적이 종교적일 경우 종교 비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

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단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한기총이 합법으로 이단을 해제해 한국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라며 "교수들이 한국교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단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신앙과 종교 비판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단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한기총이 합법으로 이단을 해제해 한국교회에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이라며 "교수들이 한국교회와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단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이 신앙과 종교 비판의 자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벨뷰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회: 오후 1:30 청소년영양: 오전 10시, (8월) 오전 11시 영지, 유년: 노후: 오전 10:00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 중후예배: 오전 11:00
앵커리지영림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영림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새벽기도회: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성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만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크리스천 리더십 (3)

- 예수님의 리더십 4가지 원리들 ②

번역 및 요약: 최운용 목사 (감사한인교회)



3. 동기의 원리: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고후5:9) "그러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리더는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를 잘 알고 확신해야 한다. 동기를 알면 열정이 나오고 방향이 정해진다.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모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축구경기를 할 때 A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B팀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 조롱, 비판이나 칭찬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껌을 잠시 씹고 난 뒤에 뱉고 만다. 아무도 껌을 씹다가 삼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리더는 칭찬과 비판을 껌을 씹듯 다루어야 한다. 즉, 리더가 되려면 사람들의 비판이나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단지 이렇게 말하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할 뿐이다.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를 알고 있다.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뿐이다.

4) 리더의 궁극적인 동기는? 요17:4에서 예수님은, "나는 당

원리는 연합의 원리다. 이것은 함께 일하는 원리를 말한다. 예수님은 결코 홀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정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셨다.

1) 리더는 결코 혼자 일하지 않는다

리더는 언제나 팀이나, 작은 공동체나, 소그룹의 상황 속에서 리더를 하는 것이다. 모든 위대한 리더들을 보면 먼저 사람들을 불

당신은 삶에서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가?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당신이 그 상처로부터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가? 인생은 전쟁이다. 당신은 리더로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입을 것이다. 당신이 험악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당신을 끌어내어 당신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영적으로 강한 동기를 갖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있는가?

리더십 포인트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었지만

3.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4. 혼자서 아닌 영적 동반자와 함께하는 연합이 필요

이 있다. 그러면 누가 이끌까? 경기 후에는 사람들 가운데 절박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덤벼든다. 리더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2) 예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셨다.

요5:30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의 청중(하나님)을 위해 사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일에 결코 관심이 없었으며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뿐이었다. 만일 능력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되려한다면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의 축

신시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성함으로써 이 땅에서 당신에게 영광을 돌렸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유일한 완벽한 리더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동기는 이 땅 위에서 그분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동기다. 리더는 이 동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리더의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서 리더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중간에 포기해버릴 것이다. 삶 속에서 '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리더에게 '어떻게'를 보여 주실 것이다. 리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4. 연합의 원리: 리더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

(막3:13-15) "예수님은 12제자를 사도로 정하시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할 리더십의 네 번째

리 모으고 팀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이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팀을 세우야 한다. 실제로, 리더가 팀을(가정, 부서를,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리더가 아니라 단지 홀로 서있는 외로운 사람일 뿐이다.

2) 영적 동반자를 만들라
리더는 그의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만일 리더의 꿈과 비전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리더에게로 이끌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리더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안감과 교만 때문이다.

리더는 종종 두 가지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이며, 둘째는 자신의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리더는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경우 그는 리더가 아니라 외로운 자일뿐이다.

그분도 인간의 동반자가 필요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괴로워하고 계신 그 순간에 그분은 무엇이 필요했을까? 그분은 친구가 필요했다. 그는 팀이 필요했다. 그는 동료도 필요했다.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필요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하셨다.

누군가 슬퍼할 때, 그들이 어려운 때를 겪고 있을 때, 리더는 어떤 환상적인 지혜로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조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라. 그리고 그들의 어깨를 팔로 감싸주라. 방안에 앉아서 조용히 그들과 머물러 있어주라. 단지 방안에 당신이 있는 것으로도 위로가 된다. 리더 자신도 동역자가 필요하며 또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

<계속>



방지일 칼럼 (53) "본대로 들은 대로"

2세 신앙은

일본엔 벌써 한국 사람의 진출이 오랜고로 2세, 3세가 차차 주 멤버를 이룬다고 한다. 그러나 모국어는 거의 못하든지 듣기는 좀 하고 말은 하되 순전히 외국인의 한국말이라 이런 현상에서 교회에선 벌써 동시통역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거니와 앞으로 제 1세가 다 지나가면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실정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말에는 구애되지 않으나 2세 신앙은 문제인데, 더욱 외국 거주하는 신앙인의 2세 신앙은 문제점이 있다.

미국도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로 교회도 청소년들의 지도가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기성세대 표준으로 교회를 한국과 같이 운영하였는데 집에서 부모와의 대화에 구애는 받지 아니하나 교회에 가면 들으면서도 그 뜻을 모른다. 교회 자체나 부모들의 걱정이 태산 같다. 부모의 말을 순종하여 교회에 출석은 하나 한번 두 번이 지 오랜기간 그 관태가 대단하여진다. 젊은이들을 위한 순전하게 현지 말로 예배를 드리게 전문 전도사를 청한다. 능하다는 전도사는 젊은이들의 기분에 동조하여 흥분위주의 찬송이요 철야집회요 해서 고도의 흥분으로 일관한다. 속죄 구령의 복음보다 운동장에서 운동용 응원환 때 같이 모험적이기도 하고 이성을 잃은 듯 감동만 돋우다 때론 운동장이 난투장이 되는 소식은 어디서든지 때로 보는 바이다. 이같이 젊은이들을 인도함을 듣기도 하였다.

다 정상적인 길이라고는 하지 못한다. 따라서 잘못되는 점도 많이 보이며 들리기도 하였다.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교회학교 아동부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 외국에서는 말을 못 알아 들어서 그렇다 하거니와 본국에서는 말이 문제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어떤 목적의식으로 교회를 멀리한다. 신앙생활을 통한 함은 아니되 자연스럽게 마스크에서 이목을 즐겁게 도취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빠지게 되어있다. 생각있는 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고 부심도 한다. 그러나 세상적인 면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속수무책이라 낙심함을 보기도 한다.

나는 근일 내가 선교하던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나서 거기서 학업을 닦은 사람들인데 그 부모 그 조모의 신앙을 전승 받아 사십대 미만된 이들이 회사의 과장이요 대리요 부사장이 되어서 한국을 찾는다. 놀라게 나를 자국시킨다. 어떻게 저들의 신앙이 돈독한지 모르겠다.

어려서 자랄 때부터 들은 것뿐인데 나를 할아버지라 꼭 칭호하면서 그 복음신앙에 든든하게 선 것은 전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무신사상 하에서도 신앙은 부전 자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이니 오늘 우리 2세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가정에서는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환경이야 무신사상화와는 전혀 다른 형편이라 속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해야 할 것이다.

나는 근자에 때론 중국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서 놀랄만한 사실을 친히 당하고 있으면서 내 아버지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재인식하면서 우리네들은 더 좋은 환경이라 공산당 치하에서 그 무서운 제도 하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했다고 생각할 때에 이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시키는 일이 내 자신의 신앙에 정비례할이라 부모된 어른들의 신앙이 문제 있다 자성하며 골방에 들어가 자신의 신앙이 부족함을 상기하며 내 자녀 하나님을 위하여 읍과 같이 제단을 쌓는 본분만을 감당하며 만족한 것이다. 실행은 하지 아니하고 격정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직무무기라 할 것이다.

중국서 나를 만나러 온 젊은이들의 아버지 편지를 보면 믿을 만한 아들이라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격려든지 과감하게 말해 돌려 보내라는 말까지 부탁한 바이다. 자기 가정에서 때로 쌓는 제단에 모인 신앙동인들의 사진도 몇 장 왔다. 내게 혹 소식 없는 이들을 몰았더니 신앙노선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힘을 본다. 쉽게 믿는 사람도 없지 않다는 말도 함을 듣는다. 진실한 신앙인은 조금도 요동이 없다. 변하지 않고 복음신앙을 고수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인도한 일을 본다. 2세를 위해서 염려 말고 책임있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마땅하다.

(1997년, 4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MISSION VISION TRIP

-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바
-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 4) 알라스카(에스키모) (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택 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오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68)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6. 교회교육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한인교회들이 커리큘럼 계획 및 수립에 임할 때 유의점들 중 마지막은 “커리큘럼이란 학령기의 자녀들의 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회중의 교육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인 회중들을 위한 교육커리큘럼을 수립, 계획 및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인교회들에서-물론 한국 및 다른 미국교회들에서도 대부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그와 관련된 커리큘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소위 “K-12”라 불리는 유치부부터 중, 고등부까지에 속한 학령기의 자녀들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관심을 갖는 교회들에서는 유아부와 대학부가 교육 부서들로 고려되고 있

교육과 양육의 대상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커리큘럼과 체계적인 교육의 장 및 실천이 부진한 것만은 현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인 회중들을 위한 교육 및 커리큘럼의 문제는 다섯 가지 커리큘럼의 영역인 코이노니아, 리더지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각 영역들 간의 불균형의 문제와 그나마 실행되는 영역들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그 커리큘럼은 지난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바, 다섯 가지 커리큘럼의 영역인 코이노니아, 리더지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를 다 아울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은 바로 그 가르치는 영역을 더하여 주기만 한다면, 균형 잡힌 그리고 모든 회중적 삶의 영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에 더하여 대부분의 성인들의 경우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이미 정립되어 있으므로 한국 교회들에서처럼 여러 매체들을 통한 성인들을 위한 큐티 자료들이나 혹은 자가 학습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성인들을 위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입니다(물론 노년기에 접어드는 성인들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한 형태나 하이 테크놀로지의 부분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지요). 제자훈련 등의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회중적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의 예로 참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인 회중 위한 체계적 교육으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토대 마련 자녀들은 디다케/교수에만 집중 비해 성인들은 디다케/교수가 빠져

기도 합니다. 물론 유아부 교육은 보통 “nursery”에서의 보살핌과 활동 정도인 경우도 많고, 대학부의 경우 그 자녀들이 타주의 대학으로 떠나거나 혹은 같은 주라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상시적인 교육이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회들에서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연령대 이후의 회중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청장년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인 회중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이를 위한 커리큘럼의 수립 및 실행은 한인교회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듯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육적 사명은 우리 성도들을 어느 일정 연령까지가 아니라, 일평생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구어 가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최근 20-30여년 평생교육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강화되면서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계속 교육의 가치를 구현시켜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교회들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극히 미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인 회중들이

만 할 만큼 그 중에서 “디다케: 교수 가르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인교회 어른들의 회중적 삶은 딱 그 반대로 “디다케: 교수 가르침”이 빠진 다른 영역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머지 영역들이 제대로 커리큘럼으로 수립되어 실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성인들을 위한 교육 및 커리큘럼 수립 및 실천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보완하여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 교회들이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보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한인교회들의 성인 교육 및 이를 위한 커리큘럼의 수립 및 실행은 아주 조그마한 노력, 즉 기존의 우리 성인 회중들의 삶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코이노니아, 리더지아, 케리그마, 그리고 디아코니아 영역에 사역자들이 교육적 의도를 가지고 질서를 부여하기만 한다면, 일단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이에 디다케의 영역 즉 학령기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서 강조되어

한인 어른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도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겨운 삶이 그들로 하여금 강한 신앙과 성숙한 영성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 그 힘겨운 삶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과 영성을 갖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자녀들의 교육에만 집중하고 자신들의 교육적 필요는 뒷전으로 미루는 희생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불완전한 신앙 성숙 뿐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라도(부모교육), 자신들을 위한 교육과 그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커리큘럼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역자들은 성인 회중을 위한 교육, 그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수립 및 실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속히 이를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어(시18:28-29)

성도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매일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심든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됨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 영입니다. 어떻게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갇히든지 원수를 넓은 들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성벽 뒤에 숨어 있다가 만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수많은 군대로 우리를 포위하든지 돌벽으로 우리를 에워싸든지 우리가 원수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시18:28-29)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28절).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했다(With your Help)”는 것과 “내 하나님을 의지했다(With my God)”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과 싸워 이겼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적군을 이기고 믿음으로 벽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에 달리다”는 뜻은 “적군과 싸우다”는 뜻인데 저들 혼자서 적군과 싸우기는커녕 싸

울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적군과 싸울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풀리었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어떠한 장애물도 다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시18:30)

다윗은 오직 말씀 붙잡고 승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면 어떠한 실수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정미”하다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용광로에서 연단한 은처럼 순결

하고 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교훈은 순수합니다.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말씀은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믿었고 방패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 방패가 돼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시18:30-34)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체험한 것은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되니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방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처럼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분께 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온전히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하루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도

놀라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하며 간증을 시작하자 자신의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처럼 찬송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되시고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시18:31-32)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말에 힘이 생겨서 힘겨게 외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천지에 하나님과 같이 찬송과 영광을 받을 분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원문에 보면 31절 초두에 “왜 그런고 하먼”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의지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돼주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분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피우셨다”고 고백합니다. 힘을 내기 위해 매는 허리띠가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졌으니 승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시18:33-34)

주께 피하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민첩한 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33절 암사슴은 민첩하기로 유명한 짐승입니다. 암사슴은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어떤 위험한 곳에서도 민첩하게 발을 움직여 금방 높은 곳으로 올라가 우뚝 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늘 높은 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4절 “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낫활을 당기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 잘 쓰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피할 때 자신이 하는 전공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더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Jesus Te Ama” 예수님 사랑안고 선교지로...

-남가주든든한교회, 멕시코 까말루 단기선교팀 파송 (상)

[편집자주] 본지 기자 이성자 전도사가 바하캘리포니아 멕시코 까말루(이종식 선교사 사역지)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 선교현장을 다녀왔다. 까말루는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가 후원하는 곳으로 남가주든든한교회는 20일 주일예배 시간에 파송식을 가진 바 있다.

이성자 기자는 까말루 선교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24일에 출발한 후진 팀과 합류해 멕시코로 출발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이번 단기선교에 참석한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김현인 목사가 선교센터 한쪽에 파져있던 깊은 구덩이에 빠져 머리와 눈과 발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었으나 동 교회 선교팀들은 초지일관 침착하고 순발력 있는 처리와 뜨거운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다시 2015년 단기선교를 꿈꾸고 있다. 이성자 기자의 선교동행기를 2회에 나눠 게재한다.

양하기 시작했다. 찬양이 울려 퍼지자 이종식 선교사는 “찬양은 이 버스의 영원한 ‘개스’”라며 웃는다.

이미 어둠이 내려오는 시간이었지만 단원들에게 또 하나의 사역의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여호와 닮은 교회는 멕시코 선교사관학교 신학생이 이끌어가고 있는 셀교회였다. 이 교회는 나름 기반이 잡힌 곳이라고 한다. 바로 전 주일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해 이전했다. 그 때문에 교회 안은 온통 리본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날 밤, 단원들은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머니를 털어 정성껏 헌금을 드리기도 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시간은 11시. 학생단원들은 지치지 않는 듯 삼삼오오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잠자리에 들려하지 않자 리더들은 “내일 새벽은 4시에 사역시작”임을 알리며 숙소로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

새벽 4시...커피전도사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그곳 신학생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커다란 보온병에 250잔의 커피를 준비했다. 이날은 ‘새벽 커피전도사역’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곳 현지인들은 새벽에 농장으로 일을 나간다. 물론 아침은 먹을 생각도 못한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어둠이 깔린 시각에 각 농장의 농장주가 보내주는 버스를 타기 위해 골목골목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들. 커피 250잔은 턱도 없이 부족한 분량이었다.

선교팀은 스페니시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짝을 이뤄 커피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커피한잔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결실이 있을까?” 생각했던 기자는 그 현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따끈한 커피한잔 건네며 손을 잡고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농장으로 향하는 일꾼들의 마음까지 녹여주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따라하게 하는 놀라운 결과!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란 그리 어려운 게 아니구나...”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러한 커피 사역도 쉽지가 않다. 한 두 사람

이 나가

서는 수없

이 쏟아져

나오는 인파들

에게 커피나누기도 바

쁘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페

니시가 가능한 선교 팀들이 올 때

가능한 일이라며 이 선교사는 남가

주든든한교회 팀에게 찬사를 보낸

다. “물질도 문제지만 인력! 전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쉽게 할 수 있

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어둠속에 전도사역을 나갔다가

아침 해가 뜰 때쯤 센터로 돌아왔

다. 이 사역에 동참한 선교팀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온 아픔 때문이다.

그러면 이른 새벽에 농장으로 나

가 12시간 일을 하고 벌수 있는 돈

은 10달러도 채 안된다고 한다. 그

돈으로 대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 그 삶의 질이 어떻게 짐작이

된다. 피곤한 육신의 고통을 떨기위

해 그들은 쉽게 마약을 접어든다고

한다. 그 모습은 자연스레 아이들에

게 이어져 대물림이 되고 있다.

그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어른이

나 청년들은 일을 나가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낮 10시, 11시까지 잔다

고 한다. 일찍 일어나면 배가 고프

기 때문에 그냥 잠으로 시간을 보낸

다. 느지막이 일어나 아침 겸 점심

을 먹고 저녁이 되면 풍만 빛은 타

코로 주린 배를 채우고 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라고 귀땀한다.

그러다보니 여성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간 셀교회에서는 단원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자며 팔찌며

그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간 선물을 닦치는 대로 집어가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프고 슬픈 현실이다.

그래도 단원들은 그 모습이 밍기보단 너무 안쓰러워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단기선교 마지막 사역

새벽전도사역을 마치고 들어와 단원들도 늦은 아침을 먹었다. 현지인들과 시간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침을 마치고 마지막 사역지로 떠났다. 또 다른 교회에서 VBS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단기선교의 마지막 순서이다.

마지막 날 찾은 교회는 아주 조용한 동네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종식 선교사는 “이제부터 가까호 찾아가 전도하고 아이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단원들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들쭉 찌꺼여 노방전도에 나섰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까? 어디서 오는지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삼시간에 200여명이 몰려들었다.

교회 안은 발들일 틈도 없이 차버렸고 땀 냄새로 뒤범벅이 되었다. 이미 경험자가 된 선교팀은 능숙하게 아이들을 지도하며 말씀도 전하고 만들기도 하며 곳곳에서 웃음꽃을 피워갔다.

마지막 날이라 선물도 동이나 급히 마켓으로 달려가 급조해야 하는 현상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현지 어린이들도 선교팀도 한마음으로 어울려 마지막 VBS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제 공식적인 단기선교 스케줄은 끝이 난 셈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성자 기자)



남가주든든한교회 단기선교팀이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

맞는 선교단원들은 마치 몇년만에 만남이구나 한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날 저녁 메뉴는 회덮밥. 그동안 수고한 단원들을 위로하기위해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종식 선교사가 준비해준 특별 요리였다. 우리 일행도 식탁에 함께 자리하고 맛난 점심(?)을 먹었다.

또다시 시작된 밤 사역

식사를 마치고 ‘이제 휴식의 시간인가?’ 하는 생각은 한순간에 깨졌다. “10분 안에 버스에 오르라”는 것이다.

상텔모 지역에 있는 ‘여호와 닮은 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며칠째 강한 영적 군사로 훈련된 단원들은 재빠르게 준비하고 버스에 올랐다.

그곳에서 운행되는 버스는 은혜 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기증해준 50인승 버스였다. 그 버스는 14년이나 된 보기에는 낡은 버스지만 그곳 선교지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단원들이 차에 올랐지만 버스는 출발하지 않았다. 그때 이종식 선교사는 “찬양이 없으면 이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자 사시간. 점심 식탁에서 후발 팀을

특유의 조화로 꾸몄다.

기타와 오르간 심이가 찬양을 인도할 만큼 수준(?)있는 교회였다.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목사는 여성. 신학생이었으나 담요가 너무 심해 시력을 거의 잃어 공부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명예졸업을 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단에 오르는 걸음이 사투 조심스러워 보였다.

김현인 목사에게 갑작스런 셀교 요청

선교팀들은 이 예배에서 찬양과 울동으로 예배의 시작을 도왔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김현인 목사에게 셀교를 부탁해왔다.

김 목사는 당혹스럽긴 했지만 사양할 수 없어 순종함으로 단에 올랐다. 김 목사도 스페니시가 능했으나 갑작스레 단에 올랐기에 한국말로 말씀을 전했다. 마가복음 4:35-41의 말씀으로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힘찬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통역은 티미 학생이 맡았다. 어릴 적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코스타리카에서 자란 티미는 한마디의 막힘도 없었다. 그



새벽 동이되기 전에 농장으로 나가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팀원들.

yh | Youth Hallelujah

#RISEUPNYC

youthhallelujah.org

9.5-6.2014 @ 7PM

[Doors Open 6pm]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SPEAKER
[Rev. Samuel Choi]
BETHANY UMC, NEW JERSEY

PRaise TEAM
[Philadelphia]

SPONSORED BY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HOSTED BY
Asian Youth Center of New York